

Carbon Trust는 저탄소 빌딩, 동식물 폐기물 에너지 연구 등 다양한 저탄소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저탄소제품과 새로운 에너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arbon Trust의 Marine Energy Accelerator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상품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 작동, 유지 비용 절감을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환경전문 기업투자기관이 컨설팅 함으로써 탄소배출감소와 기업이익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지원을 적극 수행하여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시 환경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환경관련 중소기업들의 영국 내 법인 설립시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의 바이오매스, 풍력

덴마크는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 중에서 바이오 매스가 70.6%, 풍력이 18.4%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바이오 매스는 바로 쓰레기와 밀집을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이다. 소각 과정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열은 난방과 온수로 활용된다. 전체 쓰레기 중에서 약 70%가 재활용되며, 23%가 소각되고, 나머지 6%만이 매립되는데 바로 소각되는 쓰레기가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밀을 추수하고 나면 많은 밀집이 남게 된다. 농부들은 이 밀집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전력회사에 판매하며, 전력회사는 이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풍력이다. 풍력은 전체 에너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력만을 놓고 보면 전체 전력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일찍부터 풍력에 관심을 기울여서 현재는 풍력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1위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Vestas사, 세계 1위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업체인 LM Glasfiber사가 덴마크 회사이다.

2006년 기준으로 풍력발전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315개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의 총 매출액은 약 97억불이다. 2006년에는 덴마크에서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생산된 모든 풍력발전 관련 제품들이 수출되었다고 보편된다.

덴마크는 이처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최고의 국가임에도 2007년 2월 에너지정책 비전 2025 (A visionary Danish energy policy 2025)를 수립하여 2025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현 수준보다 15%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 수준을 2007년 현재 수준으로 억제하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최소 30% (현재 약 15%)까지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